

地球村 환경보호 全人類가 나설때

— 21世紀 自然보복... 終末을지도 —

「타임」誌는 1月2日字 ‘타임선정 「올해의 衛星」·地球」 칼럼에서 自然環境의 오염 및 훼손으로 인한 地球의 위기를 경고하였다.

地球는 결코 영원하지 않다. 길게 보아 40~50억년. 그때가 되면 태양은 자체의 수소연료를 거의 소진, 팽창하면서 지구를 포함한 주변의 衛星들을 태워버리게 될 것이라고 科學者들은 말하고 있다.

人類는 2백만년 前에 출현한 이래 地球의 환경속에서 매우 잘 번성해왔다. 1800년에 10억이던 地球의 인구가 1930년에는 2배로 늘었고, 1975년에는 또다시 2배 증가하였다.

현재의 증가 추세로 나간다면 51억의 人口는 앞으로 40년내 또다시 2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가지 가공할 아이러니는 한 生命體로서 성공을 의미하는 이같은 人類의 기하급수적 증가가 그 서식처인 地球의 종말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問題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人間이 地球를 무분별하게 다루어 왔다는데 있다.

판도라의 상자를 떠난 사악한 「지니」처럼 技術工學의 진보는 자연의 오묘한 균형을 깨뜨려왔다.

産業革命의 여명기 이래 公害産業體들은 유독가스를 大氣에 방출하고, 工場들은 山과 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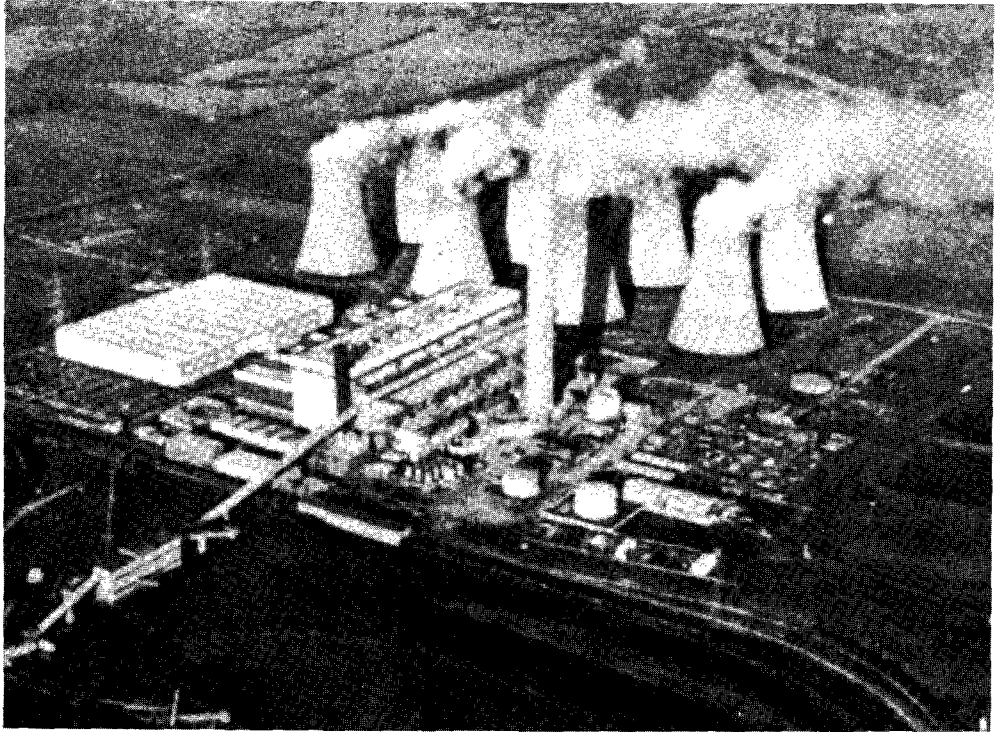
에 유해폐기물을 유출하며, 自動車는 대체가 곤란한 化石燃料을 대량 소비한 후 그 배기가스로 공기를 더럽혀왔다. 또한 開發이라는 미명하에 산림이 훼손되고, 호수는 살충제로 오염되고, 地下帶水層은 고갈됐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대홍수를 예고했듯이 地球는 '88年度에 입을 열었고, 사람들도 갑자기 귀를 기울여 그것이 뜻하는 바를 심사숙고하기 시작했다.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동남부의 조지아에 이르는 美國 全域에서의 3個月에 걸친 가뭄과 폭서는 地球에 「온실효과」현상이 이미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엘로스톤공원을 비롯 가뭄으로 메말랐던 美國 서부지역의 삼림에서는 대화재가 일어나 환경파괴의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해변은 쓰레기와 의료폐기물로 오염돼 대서양과 북해 및 영국해협에 이르는 해수욕장들이 폐쇄됐다.

살인적 허리케인이 카리브해를 휩쓰는가 하면, 홍수는 방글라데시를 삼켜 自然의 파괴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5만5천의 인명을 앗아간 소련 아르메니아의



▶ 대기중에 방출되는 CO₂가스의 증가가 온실효과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大地震은 자연재해임이 분명하나 그 많은 사상자는 자연을 대하는 人間의 고질적인 부주의를 드러내 보였다.

무엇보다도 불길한 것은 現存 動植物의 거의 반수가 서식하는 열대지방의 삼림이 1초에 축구장 1개 만한 면적꼴로 파괴돼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컴퓨터分析에 의하면 대기중 탄산가스(CO₂)의 축적으로 21世紀 중반에는 지구의 평균온도가 섭씨 2~5도나 상승한다. 이렇게 되면 남극과 북극의 빙산이 녹아 水量이 늘어나 海面이 상승, 해안지역이 침수돼 氷河현상으로 방대한 규모의 농지를 버리게 된다.

유독폐기물은 안전식수의 부족을 초래하고, 80억에서 140억의 人口가 살게 될 21세기에는 집단기아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은 단지 기우에 불과하며 근거가 희박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환상은 금물이다. 지구환경에 가해지는 막

대한 손상을 막기 위한 효과적 행동을 취하는 데는 戰時에 상응하는 정치적 의지와 國際的인 協力 그리고 희생을 필요로 한다.

또 보통사람들 개개인이 생활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환경보존을 위한 어떤 노력도 성공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낭비적이고 부주의한 생활태도는 과거의 일로 만들어야 한다.

이같은 團體的 과업을 수행하려면 과거 위기 상황때마다 출현했던 비상한 지도력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는 과거 어느때 보다도 강력한 사명감으로 自國民들을 분발시켜 국수적이거나 군사적 작전이 아닌, 지구를 구하기 위한 범세계적 운동을 추진할 지도자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가 이러한 대의를 일치단결하여 그리고 지체없이 수용하지 않는 한 서서히 다가오는 종말에 흐느끼는 地球를 구할 代案은 없는 것이다.